자원순환 천국을 위하여
– 충북 제천시

△ 선별장 전경

제천시는 충청북도의 북부,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호가 어우러져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하여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다.

인구 14만 명의 이 중견의 지방 도시는 문화관광 도시로서만이 아니라 자원 재활용의 선도 도시로서의 이름을 올리려하고 있다. 2008년도 스티로폴 재활용 최우수지자체로 충북 제천시가 선정 된 것이다. 2007년도 제천시의 스티로폴 감용 실적은 81톤으로 절대량에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의 규모나 인구 수 등을 감안하면 만만한 실적은 아님을 알 수 있다.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스티로폴의 사용량은 증가 추세이다.

제천시는 재활용품을 시직영 차량 6대와 28명의 인원으로 직접 수집 · 운반 · 처리하고 있다. 스티로폴은 170㎡의 감용동에서 전담 인원 3명이 시간 당 150 ~ 200kg의 감용기를 운영하고 있다.

제천시가 스티로폴 감용 실적 등에서 월등한 전남 목포시 등을 젖히고 이번에 스티로폴 재활용 최우수지자체로 선정 된 것은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에서의 경쟁력도 있지만 자원재활용을 위한 기관장 및 담당자들의 의지를 읽게하는 야심찬 자원관리센터의 조성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.

총 부지 772,513㎡(시설면적 18,832㎡, 주변 녹지 584,681㎡)의 터에 총사업비 468억 원을 들여 2003년 1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중 완공되는 이 센터에는 매립시설, 음식물자원화시설, 소각시설 및 재활용기반시설 뿐 아니라 축구장, 눈썰매장, 약초원, 생태연못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원순환천국을 만든다는 것. 이 자원관리센터는 사업시작 전에 해당 부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착공함으로써 요즘 만연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시설 기피 등의 '님비현상'을 극복한 모범사례로 다른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산 바 있다.

문화관광 도시, 자원 순환의 도시를 만들어 가며 오늘도 일등제천, 젊은제천, 행복제천의 꿈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.

■스티로폴 재활용실적